

플라톤의 대화편 폴리테이아 I의 분석*

이 정 호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1)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의 문제 |
| II. 예비적 개관 | 2) 부정의는 정의보다 강하고 유익한 것 |
| III. 대화의 분석 | 인가의 문제 |
| 1. 케팔로스 및 폴레마르코스와의 논변 | IV. 맺는 말 |
| 2. 트라시마코스와의 논변 | |

I. 들어가는 말

플라톤의 생애중 완숙기에 쓰여진 폴리테이아(Politeia)편은 흔히 국가(Republic) 편으로서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 Politeia라는 회랍어의 원의속엔 정의라는 뜻이 함께 함의되어 있다.¹⁾ 그리고 그것은 플라톤 자신에 의해서도 「국가」(Politeia)라는 제목이외에 「정의로운 사람에 관하여」(peri dikaiou)라는 또 다른 제목으로 함께 붙여진 것으로 전해진

*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년도 학술조성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본고의 Text : Platonis Opera, ed. J. Burnet, Vol. IV, Clarendon Press. Oxford 1972.

Notes : 1) J. Adam, The Republic of Pla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2) B. Jowett, L. Campbell, Plato's Republic. Clarendon Press, Oxford. 1894.

1) 폴리테이아편이 흔히 국가 또는 공화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폴리테이아의 라틴어역인 Re:publica를 문자 그대로 다시 번역한 영어의 Republic이란 말을 우리가 또다시 그대로 사용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회랍사람들은 조직화된 공동체의 가장 발달된 형태 즉 회랍적 의미에서의 도시 국가적인 공동체를 그와같이 불렀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굳이 그것을 옮긴다면 공동체(communitiy)로 옮기는 것이 보다 원의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cf. W. K. C. Guthrie,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 IV.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435,

G. C. Field, The Philosophy of Plato.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48

다.²⁾ 물론 희랍어적 의미에서의 국가와 정의라는 말이 갖는 함의는 오늘날의 우리가 쓰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고 「국가」와 「정의로운 사람에 관하여」라는 주제자체도 별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의에 해당하는 희랍어 *dikaiosynē*와 그 반대어인 *adikia*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만을 살펴보다라도 정의로운 사람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별개가 아님이 암시된다. 즉 *dikaiosynē*는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개인의 영혼 및 타인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제반 덕(*aretē*)들의 총체를 의미하고 그 반대어인 *adikia*는 개인의 영혼 및 타인과 관련한 도덕적인 가책의 결핍일반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뜻하고 있다.³⁾ 따라서 플라톤이 정의를 문제삼을 때 그것은 곧 도시국가 구성원들이 공동체내부에서 최선의 삶을 누리하고자 할 때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될 공동체적 삶의 총체적인 표본(*paradeigma*)을 설정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폴리티이아 편에서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주제와 국가라는 주제가 이중적으로 접합되는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폴리티이아편은 개인의 정의가 국가의 정의로 유추확대되는 제 2 권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을 거쳐⁴⁾ 표면상 주로 이상적 도시국가와 관련한 언급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오히려 철저히 정의로운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그 이상국가론의 배후에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면서 그 모든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상 우리로 하여금 폴리티이아편을 한갓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만 관련시키고자 하는 제반 논의로⁵⁾부터 우리의 시각을 폴리티이아편 고유의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부단히 되돌아오게 해주는 기본적인이고도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이제 그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그러한 단초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제 1 권의 분석을 통해 폴리티이아편을 바라보는 시각상의 유의를 위한 시사들

2) W. K. C. Guthrie (1977) p. 434

3) G. C. Field (1969) p. 48.

cf. Aristotle, EN 1130 a9, a / 2

4) Politeia 368 d ~ 369 b. 소크라테스는 이곳에서 똑같은 글자라고 하면 우선 큰 글자를 먼저 읽고 그런 연후 작은 글자를 보면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비유로 개인의 정의의 문제를 국가의 정의의 문제로 단순하게 확대유추한다. 이 유추는 폴리티이아편의 기술형식상의 틀이 되는데 이 유추가 과연 엄밀한 대응관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함축하는 바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가지 주목할만한 논란이 있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 Robert Hall, *Plato's Just Man; Thoughts on Strauss' Plato*, in *Perspectives on Political Philosophy*. Vol. I, New York 1971. cf. the long discussion of Stallbaum in his *Introduction to the Republic*. pp. vii - xv.

5) 1930 - 40 년대에 치열하게 전개된 플라톤의 정치체제이론과 관련된 정치철학적 논변들, cf. W. Fite, *Platonic legend*, R. Crossman, *Plato today*. 특히 유명한 K.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etc.

추적하고 전편의 예비적 고찰로서의 제 1 권이 암시하고 있는 폴리테아에서의 기본 논변의 윤곽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예비적 개관

폴리테아편의 제 1 권이 그 대화편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졌고 후에 하나의 서문으로서 폴리테아편에 붙여진 것이라고 믿는데엔 다소의 이설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⁶⁾ 확실히 제 1 권은 폴리테아편 이전의 대화편과 가까운 노선을 따르고 있고 초기대화편에서 나타나는 소크라테스적 믿음이 아직 논증적인 측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배면에 깔려있다. 아마도 1 권 후미에서의 소크라테스 자신의 불만족스런 모습은 1 권에서의 결말이 갖는 한계를 노정시키면서 1 권이 새로운 논변을 위한 예비적 고찰임을 암시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1 권은 앞으로의 보다 깊이있고 적극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적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정의와 기술(technē)간의 초기 소크라테스적 믿음⁷⁾을 검증하면서 폴리테아편 나머지 부분의 기본윤곽을 단편적이거나 드러내 주고 있다. 즉 1 권은 폴리테아편의 기본목표가 정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국가전편의 기본구도를 암시해줄 뿐 아니라 공동체내에서의 개인의 삶에 대한 역할과 의미를 당대의 대표적인 시대적 의식과의 집요한 논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사실상 2 권의 증반이후부터 전개되는 이상국가 구축의 배경이 정의로운 사람에 관한 논변의 확대라는 시사는 371e-372e, 376c 에서 계속 주지되면서 이상국가에 관한 기초적 기술이 끝나는 4 권의 427d, 434d 에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5 권 472b 에 이르러 글라우콘(Glaukon)이 그러한 이상국가가 실현가능한 것을 물었을 때도 소크라테스는 이상국가를 논급하는 기본 목적이 정의로운 자와 부정의한 자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시사는 재삼 부연되고 있다.⁸⁾ 이렇게 보면 정의로운 사람에 관해 표면상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1 권이 설사 이전에 쓰여진 별개의 대화편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플라톤 자신에 의해 폴리테아전편과의 의도적 연관 아래 주도 면밀하게 덧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6) Rohde 등은 폴리테아편이 각기 저작 시기가 다른 것들의 편집으로 보고 있고 Dümmer 는 1 권을 따로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편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 Taylor 나 C. Kahn 등은 그러한 주장은 뚜렷한 근거도 없고 전혀 믿기지 않는(wildly implausible) 것이라고 생각한다. W. K. C. Guthrie (1977) p. 437.

7) 즉 기술에 수반하는 지식이 덕으로서의 정의에 필요충분조건인가의 문제.

T. Irwin, *Plato's moral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77, p. 178.

8) W. K. C. Guthrie (1977) p. 434.

특히 1권의 내용은 소크라테스의 논변의 흐름이 보통 그러하듯 스스로의 논변을 배면에 두고 기존 통념의 한계부터 논파해들어가는 전형적인 형식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말과 행동에 있어 정직으로서의 정의를 표명하는 케팔로스(Kephalos) 및 폴레마르코스(Polemarchos)의 견해는 플라톤 당시의 철학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채 노년층은 물론 청년층에게까지 편만해있던 통속적인 삶의 태도를 대변해주고 있고 그리고 트라시마코스에게 의해 제기되는 소크라테스적 논변의 기본적인 반정립은 당시의 피폐된 시대적 사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에 대립한 새로운 정의관을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트라시마코스의 견해는 폴리티이아편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극복하고 논파해야 할 기본적인 거침들을 형성하게 된다. 1권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논변이 보여주는 부정적 비판의 모습은 1권의 내용이 얼핏 이러한 논변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트집으로 일관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각 논변을 논파해가는 소크라테스의 언급속엔 폴리티이아 전편에 흐르는 기본시각이 일관성있게 깔려있고 특히 트라시마코스가 완전히 굴복한 후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압도되듯 진행되는 1권 후미에서의 대화속엔⁹⁾ 추상적인 형식이나마 폴리티이아편에서의 플라톤의 의도가 뚜렷하게 제기되어 있다. 따라서 1권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폴리티이아 전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1권에서의 논변을 논술의 목적상 원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그에 관련한 논의를 주석으로 보완하면서 본 논고를 진행해보도록 한다.

Ⅲ. 대화의 분석

1. 케팔로스 및 폴레마르코스와의 논변 (327~336 a)

폴리티이아편의 모든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외항 페이라이에우스(Peiraeus)에서 열린 벤디스(Bendis) 축제에 참여했다가 폴레마르코스에게 이끌려 케팔로스의 집에서 나눈 대화를 미상의 청중에게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케팔로스의 집엔 소크라테스이외에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니키아스(Nikias), 유티데모스(Euthydemos), 클레이토폰(Kleitophon) 카르만티데스(Charmantides) 등이 있었고 수사학의 거장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도 있었다. 1권의 본격적인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¹⁰⁾

9) 353 b~354 c

10) 케팔로스는 페리클레스시대 때 아티카반도로 이주해와 무기제조상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시라쿠사 출신의 부자 거류외인(metokos)이다. 거류외인은 소피스트들이 그러하듯 도시국가(polis)적 삶에 무책임한 계층으로서 케팔로스는 1권에서 통속적이고 보수적인 도덕관을 대변한다. cf. A. E. Taylor, *Plato, the man and his work*. Methuen, London 1926, p.266.

를 만나 노년(geras)에서의 삶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케팔로스는 이에 대해 노년은 평화롭고 유유자적한 삶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고 노인들이 자신이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탓인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노년의 평화롭고 유유자적함(eirēne kai eleutheria)은 재산때문이라고(dia to pollenousian)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캐묻고자 한다. 이에 케팔로스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보다는 노년을 맞는 사람의 성격(tropos, a way of life, temper)에 기인하는 것임을 계속 비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의 응답에 구애없이 노년에 과연 재산이 가져다 준 큰 이점(megistos agathos)이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케팔로스의 답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게 되고 케팔로스는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대해 재산은 노년으로 하여금 옳고 경건한(dikaiōs kai hosios)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 얘기함으로써 그 자신의 유유자적한 삶의 근거가 결국 재산에 기인하는 것임을 스스로 노출하게 된다.¹¹⁾ 이때 케팔로스가 옳고 경건한 삶에 관한 사례로 든 것이 거짓말을 안해도 된다는 것과 신에게 결례를 안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돈을 빌린 채로 죽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등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케팔로스가 말한 옳고 경건한 삶이란 말에 주목하면서 정의란 그렇게 단순히 정직하게 말하고(ten alētheian phēsomen) 누구로부터 받은 것을 갚는 것(to apodidonai)인가를 반문한다. 이것은 곧 케팔로스로 대변되는, 재산을 바탕으로한 통속적 삶의 견해에 대한 소크라테스 자신의 비판적 고찰의 출발임과 동시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차후의 논의에 단초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케팔로스가 물려감에 따라 그의 아들 폴레마르코스가 이어받게 된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앞서의 케팔로스의 언급을 정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빌린 것을 갚는 것(alēthē te legein kai ha an labē tis apodidonai)이라는 시모니데스(Simonides)의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치환시킨 후에¹²⁾ 그 명제에서 제기된 갚는다는 것(apodidonai)의 의미를 폴레마르코스에게 묻게 된다. 즉 빌린 것¹³⁾을 돌려줄 때 빌려준 자가 제정신이 아닐 경우엔 돌려주지 않는 것이 또한 정의로운 것이라면 이것은 빌린 것을 갚는 것이 정의라는 시모니데스의 견해와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소크라테스의 의문에 대해 폴레마르코스는 시모니데스에게서 갚는다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친구에 대해선 선(agathos)이 되게 하고 적에 대해선 해(kakos)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소크라테

11) 이미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삶의 태도에 입각한 옳음의 견해가 돈과 힘있는 자의 소견임을 알고 있었다. (336 a)

12) 회람에선 성서와 같은 경전이 없어서 시인들이 종교와 도덕의 권위있는 영감을 받은 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시인들이 스스로의 가르침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해주지 못하면서 시대의 도덕을 대변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cf. Apologia 22 b), F. M. Cornford, The Republic of Plato.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4, p. 8.

13) 예를 들어 무기(oplon)같은 것.

스는 그 말의 의미를 보편적인 언사로 환원시켜 그 값는다는 것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돌려줌에 있어 합당한 것 (to prosekon)으로 할 것을 계의하고 플라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최초 시모니데스 시인에 의한 정의의 규정은 다소 소크라테스적 표현으로 환원되면서 정의는 각각 상대방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수정 정리된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새로이 정리된 정의의 규정은 케팔로스로부터 비롯된 정의관의 모호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파를 통해 소크라테스 자신의 정의에 관한 견해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서 차후의 논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정리된 정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논변에 압도되면서 수긍했을 뿐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다. 즉 소크라테스에 동의된 정의와 관련하여 정의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어떤 것을 되돌려주는 것인가를 다시 물었을 때, 다시 말해 정당한 몫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누구에게 정당한 몫인가를 물었을 때¹⁴⁾ 플라톤은 여전히 합리적인 해명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금 친구에게 이익을 적에게 해악을 주는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버리고 만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자신의 계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면서도 계속 애매한 논변으로 시모니데스적 정의관에 머물러 있는 플라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논파하게 된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계속 사용하는 친구(philos)에게 또는 적(echthros)에게 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그 친구와 적의 규정과정상의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설사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선한 사람인 친구에게 선을 베풀고 실제로 악한 사람인 적에게 해가 되게 하는 기술(technē) 일지라도 그것 역시 정의로서 합당치 않음을 비판한다.

즉 소크라테스는 해를 당하면 악해지는 게, 말들에게서의 유추를 통해 인간도 해악을 당하면 자신의 덕성(aretē)¹⁵⁾이 적어져 더욱 더 부정한 사람(ho adikos)이 되는데 과연 옳은 인간(ho dikaios)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정의로써 제3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지를 반문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옳은 사람의 소행이 아니며, 그러한 한 친구를 돕고 적을 해치는 것이 정의이다라는 케팔로스로부터 시모니데스적 견해 및 플라톤에게 이르기까지 변명된 정의관 내지 삶의 태도는 정의의 규정으로 합당치 않음이 논증된다.

결국 이상의 플라톤의 논변에 비추어 볼 때 소크라테스가 취하고 있는 정의에 관한 입장은 비록 적극적인 논변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의는 각각 본래의 상대방에게 합당한 것을 되돌려주는 기술(technē)¹⁶⁾이면서 또한 어떤 경우든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

14) Cornford (1964) p. 8.

15) 어떤 종류의 것이건 탁월함의 훼손은 곧 정의의 훼손임을 암시하는 이곳의 문맥은 정의가 인간이 갖는 덕의 일부가 아니라 덕일반임을 보여준다. cf. P. Shorey, Plato, The Republic I,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 35.

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암시되고 있다. 이것은 곧 2권 이후의 논의에서 전개될 공동체내에서의 인간의 올바른 삶이 본래적인 기능을 일탈한 투쟁적 자기상승 및 확장 내지 갈등이 아닌 합당한 위치에서의 구성원들간의 조화에 있음을 예기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소크라테스가 폴레마르코스와와의 대화를 마치면서 시모니데스적 정의관이든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자기에게 힘(dynamis)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얘기한 점과, 그리고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 첫 파념으로 선정된 케팔로스가 바로 아테네 시민이 아니면서 상업적 지배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을 얻은 거류외인(metoikos)이었다는 점을 연결시켜볼 때 더욱 더 설득력있게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트라시마코스와의 논변

1)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의 문제(336b~347e)

케팔로스 및 폴레마르코스가 제시한 시모니데스적 정의관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논파되자 그동안 대화를 못마땅히 듣고 있던 트라시마코스가 참다못해 끼어들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간의 논변이 시작된다.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기를 원한다면 질문만 하는 입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장을 내보여야 한다고 시비를 건다.¹⁷⁾ 이러한 시비와 빈정거림이 있는 후 트라시마코스는 이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님(einai to dikaion ouk allo ti ē to tou kreittonos xympheron)을 주장하게 된다. 즉 지배자들(archontes)은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 보다 강하며(ischyros) 정의는 어떤 행위 어떤 상대이건간에 이들 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nomos)의 이름을 씌워 이름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강자¹⁸⁾의 법은 자기들의 사적이고 특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오직 지배자는 힘(dynamis)으로 자기의 권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곧 법이자 정의이다.¹⁹⁾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러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대해 그의 생각상의 도식이 갖는 애

16) 정의는 이미 폴레마르코스와와의 대화속에서도 자기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줄 아는, 즉 무언가 숙지해야 그 결과를 산출시킬 수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서의 기술임이 도덕성의 문제와 기술(의술, 제화술, 항해술등) 간의 잦은 비유를 통해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Sophia)은 덕의 충분조건이라는 이러한 1권에서의 소크라테스적 믿음은 2권 이후의 논의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cf. T. Irwin. (1977) p.178.

17) 이와 비슷한 소크라테스 논변방식에 대한 불평은 Theaitetos 150c, Gorgias 483a에서도 발견된다.

18) 강자(kreitton)의 회람어적 의미속엔 보통 우수한자 또는 agathos(good)와 종종 비교되면서 보다 나은 자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낫다라는 말은 트라시마코스에게 있어서 전혀 도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도덕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자의 우수성은 다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술수(skill)와 결의(determination)에 있을 뿐이다. F. Cornford (1964) p.15.

매성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부터 토론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때론 실수를 저질러(hamartanō) 그들 자신에게 불이익되게 법을 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피지배자들이 그들의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한 한에 있어 정의는 때론 강자의 이익이 아닌 것을 행하는 데 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지적을 풀레마르코스도 지지한다. 그러나 클레이토폰(Kleitophon)이 끼어들어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바 강자의 이익이 뜻하는 바는 옳고 그르진 간에 일단 강자에 의해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생각된 것(ho ἔγοιτο)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클레이토폰의 이러한 거들여 줌도 마다한 채 트라시마코스는 지배자는 엄밀히(akribēs) 실수를 할 수 없는 한에서 지배자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엄밀론(akribologia)을 엄밀론으로써(tō akribēi logō) 대응하고자 한다.²⁰⁾ 이제 이러한 한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엄밀한 의미의 지배자가 실수를 하지 않는 한에 있어 강자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엄밀론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미 트라시마코스 자신의 논변상의 기초를 흔들며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크라테스적 논변으로 이끌려가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즉 트라시마코스에게 있어 강자란 처음에 단지 힘으로 지배하는 자들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제기된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에게 힘뿐 아니라 실수함이 없이 지배하는데 필요한 지식(sophia)과 기술(techē)이 부가되고 있다. 이처럼 트라시마코스가 실수함이 없이 완전한 의미에서 지배자가 숙지해야 할 지배의 기술이 그들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그것은 트라시마코스보다 하여금 여타의 기술과 비교 유추해서 그 지배자의 이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²¹⁾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엄밀론에 의해 노정된 이러한 단초를 놓치지

19) 이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질서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서로 약간씩 희생하여 지배자와의 상호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한다는 사회계약이론을 거부하는 것이다(Cornford (1964), p.14). 물론 소크라테스적 정의도 사회적 합의나 계약의 소산이 아니다. 트라시마코스과 동일한 주장을 펴는 고르기아스편에서의 칼리크레스의 입장과 비교하면 결국 두 입장은 자연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 한다. 즉 nomos와 physis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강자의 nomos에 대한 확신을 통해 physis를 역규정함으로써 그 두 입장의 자연 상태에 대한 내용은 정반대가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트라시마코스는 같은 주장을 자연이 아닌 전통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A. Taylor, (1926) p.268.

20) L. Strauss는 트라시마코스가 만일 지배자도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라는 상식적인 견해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면 혹은 지배자들은 걸로 보기에 명백히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고 언명하였다면 그는 합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Leo Strauss, *Plato, in Perspectives on Political Philosophy*, Vol. I, N. Y 1971, p. 46.

21) F. Cornford (1964) p. 21.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기술의 일반적인 예로부터의 유추를 통해 모든 지배자로서의 완벽한 지배자는 그것이 지배하는 대상(ekeinos)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제기한다. 즉 일반적인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의 독특한 고유대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그 기술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기술자체가 결함(hamartia)이 없는 완벽한 의미의 기술인 한에 있어선 자신에게 결핍됨으로써 붙여질 이익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없는 지배자의 기술에 있어 그 기술의 이익은 대상쪽으로 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세등등하던 트라시마코스는 이러한 비판에 부딪치자 거의 반론을 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비판 또한 트라시마코스 자신이 설정한 구분 즉 지배자를 기술자처럼 어떤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지배자인 동시에 오류없는 지배자로 구분했던 그 자신의 엄밀한 입장위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²²⁾

이에 트라시마코스는 자신의 엄밀론에 입각한 전제가 논파되자 부랴 부랴 다시 일상적인 경험적 사실에다 자신의 논변을 도피시켜 버린다. 즉 그는 통상 양치기(poimēn)에서 보여지듯 양치기는 양치기라고 불리면서²³⁾ 자기 양떼들을 자기자신과 주인의 이익을 위해 돌보듯이 지배자들도 지배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실제 목적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즉 지배자의 생각은 양치기가 양에 대해 갖는 태도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여지듯 트라시마코스는 이미 자신의 엄밀론으로부터 제시된 기술로서의 지배의 개념을 파기하고 힘(despoteria)으로서의 지배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지배와 힘과 자기이익이 동일시되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란 곧 약자 내지 피지배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규정된다. 따라서 트라시마코스는 일상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소위 정의로운 자는 현실사의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자에게 뒤지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특히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부정²⁴⁾의 경우엔 그것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결국 트라시마코스는 이와같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의가 철두철미함을 더하면 더할수록 항상 정의보다 강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일상적인 의미의 정, 부정의 개념을 완전히 전도시켜 부정한 자로서의 강자의 행위를 정의로 내세우는 본래의 자기주장을 계속 고집하게 된다.²⁵⁾

22) F. Cornford (1964) p. 24.

23) 지배자는 호메스시대 이래 민중의 양치기로 불리워지고 있었다.

24) 이것은 참주(tyranos)의 부정을 말한다. 트라시마코스는 도둑, 사기등의 소규모 부정은 물론 정의보다 당연히 강하긴 하지만 지탄을 면치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가장 완전하게 부정을 저지르면 즉, 시민전체의 재산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면 강함과 더불어 축복받은 자로 불리며 칭송을 받는다고 말한다(344). 곧 트라시마코스의 지배자의 전형적인 예가 참주인 바 그는 그 자리를 가장 시기하고 열망하고 있었다. F. Cornford (1964) p. 14.

25) 트라시마코스는 343 b 이후 소크라테스에 대한 설명의 편의상 자신의 정의를 일상적인 표현대로 부정의란 말로 쓰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현실사에 입각한 이러한 주장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부정의가 정의보다 강하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관련한 논변은 잠시 뒤로 접어 두면서 우선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술과 그 대상의 이익과 관련시켜 트라시마코스가 스스로 야기시킨 추론상의 비밀관성부터 비판하기 시작한다. 우선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가 양치기를 논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치기를 논하지 않고 돈벌이꾼(chrematistēs)으로 변개시켰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지적은 이제 기술자체가 목표로 하는 이익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목표하는 이익을 구분하는 새로운 엄밀론을 노정시키는 것이다. 즉 지배자는 지배의 기술과 보수획득의 기술(misthōtikē)이 결합된 자이며 의사는 의술과 보수획득의 기술이 결합된 자이다. 각각의 기술은 그것이 엄밀한 의미로 결합이 없는 기술인 한에 있어 기술자체에다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것은 일관성있게 그 기술의 대상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다. 통상 지배자가 보수(misthos)를 요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지배기술자체가 지배기술의 대상의 이익에만 상관하지 지배기술을 가진 스스로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지배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지배의 대상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며 지배하는 당사자의 이익은 보수획득술의 대상이 자기인 한에 있어 지배기술이 아닌 그 보수획득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지배자가 지배의 기술을 갖고 그 본래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라면 즉 보수획득술은 별개의 기술인 한에 있어 지배의 기술과 분리되는 것이라면 지배자는 자기의 지배기술 자체는 더함을 필요로 하는 결핍이 없으므로 기술자체의 이익은 도모할 것도 없을 것이며 다만 그 기술의 대상에게 이익돌리는 것만이 가능하게 된다.²⁶⁾ 그리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지배자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일 수가 없고 지배의 대상으로서 피지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이 논증된다.

26) 보수획득술은 모든 기술자에게 공통적으로 결합된 기술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배자, 의사, 항해사등 각기 구분된 기술의 기술자를 일컬으면서 그 기술의 대상의 이익을 문제삼을 때에 공통적인 기술로서의 보수획득술을 개입시키는 것은 구분된 기술의 대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문제삼는 논의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지배자가 도모해야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엔 이미 보수획득술은 그곳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Irwin 은 이에 대해 지배자체가 그 둘의 복합적인 또 하나의 단순한 기술임을 비치면서 비록 돈을 버는 기술이 그 특수한 기술들과 분리 되더라도 기술에 있어 탁월성의 기준은 보수획득에 대한 생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를 반문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고르기아스편에서 시작된 소크라테스의 계획 즉 만약 덕이 기술이면 그것은 올바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기술의 특성에 호소해서 논증하고자 한 소크라테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덕과 기술과 관련한 1권에서의 초기 소크라테스적 믿음은 중기대화편에 이르러선 그 한계가 플라톤 자신에게도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기대화편인 폴리테이아편에서 초기 소크라테스적 믿음이 재현되는 것은 폴리테이아편의 논술계획상의 일관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지배자가 철저한 지배자일수록 자신의 이익과는 더욱더 무관하므로 만약 뛰어난 사람들로만 어떤 국가가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배자의 자리에서 해방되려고 서로들 경쟁도 하게 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지배자에게 보수가 따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모두는 돈(*argyriōn*)과 명예(*timē*)일 수도 있고 벌(*jemia*)일 수도 있다²⁷⁾고 말한다. 이것은 지배자가 지배의 대상으로서 타인의 이익을 철저히 도모해야 된다는 힘겨운 일(*pragmata echein*)을 싫어하지 않기 위하여 돈과 명예라는 보수자체도 거절할 경우 벌로 강요하여 지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벌 또한 보수의 일종이라고 말해진다.

결국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는 처음부터의 주장은 소크라테스의 엄밀론에 입각한 집요하고도 일관성있는 논변을 통해 그 추론상의 애매함과 더불어 논파되고 만다.

2) 부정의는 정의보다 강하고 유익한 것인가의 문제 (347e~354c)

이제 소크라테스는 지배기술 및 대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개해온 이제까지의 논변으로부터 앞에서 잠시 접어두었던 문제 즉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한 바 과연 부정한 자의 삶이 정의로운 자보다 월등하고 유익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트라시마코스에게 의해 제기된 다음의 3가지 주장에 맞추어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곧 첫째, 부정의가 정의보다 더과 지혜에 있어 우월하다는 것 둘째, 부정의가 강하다는 것 셋째, 부정의가 행복(*eudaimonia*)을 가져다준다는 것 등이다.²⁸⁾

i) 첫번째의 문제

첫번째 사항과 관련한 논변을 진행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우선 정의와 부정의에 각각 탁월성(*aretē*)과 열악성(*kakia*)을 귀속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에 트라시마코스는 탁월성과 열악성이라는 말 대신에 우직함(*euētheia*)과 분별없는 술수(*euboulia*)를 각각 전자와 후자에 귀속시킨다. 즉 정의는 순박하고 단순한 마음착함에 일치시키고 부정의(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모종의 분별력있는 술책에 일치시킨다. 그런 이후 트라시마코스는 이 분별력 있는 술수가 지혜(*sophia*)인가 라는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동의한다. 그리하여 결국 트라시마코스는 덕(*aretē*)²⁹⁾과 지혜를 부정의와 정의에 귀속시킴에

27)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벌중 최고의 벌이란 자기보다 열등한자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347c).

28) 대화편의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은 F. Cornford의 구분을 따랐다.

F. Cornford (1964) p. 32.

29) *aretē*란 말은 *agathos*란 형용사가 상용하면서 본래의 기능이 충분하고도 탁월하게 발휘되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말이다. 기술자의 *aretē*는 *sophia*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로서의 숙지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어떠한 도덕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삶의 기술에 적용되며 이 때 목표로 하는 기술의 산물이란 곧 인간 자신의 행복과 복락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인간으로 하여금 얻도록 해주는 능력(*efficiency*)이 곧 *aretē*인 것이다. F. Cornford, (1964) p. 30.

있어 소크라테스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트라시마코스의 이러한 입장은 힘이 곧 정의라는 본래의 입장에서 또다시 분별력있는 술수를 자기의 정의(곧 부정의)에 부가시킴으로써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정의가 일단 무엇인가를 숙지해야 산출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과 마찬가지로 삶의 기술과 관련한다는 논변으로 재차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정의에 대한 함축이 정반대일 뿐 형식상 공통적인 논변의 기초위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트라시마코스의 위와 같은 입장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때 그 스스로의 논변의 일관성을 또다시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부정의가 분별력있는 술수를 동반한 즉 모종의 지혜에 속한다는 트라시마코스의 반복된 전제를, 트라시마코스도 함께 받아들인 삶의 기술과 여타의 기술간의 유추에 기초해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한다.

우선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로운 사람은 다른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선 능가(pleonexia)³⁰⁾ 하려하지 않고 부정의한 사람에 대해선 능가하려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악기를 조율함에 있어(en tē epitasei) 어떤 음악가가 각각의 줄에 절대적으로 올바른 어떤 음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음악가는 조율에 있어 이미 그 음조의 올바른 척도를 알고 또 조율할 줄 아는 다른 올바른 음악가를 능가하려하지 않는다. 그들 사이엔 이미 서로를 능가할 수 없는 조율의 절대적인 척도가 처로의 기술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덜 숙련된 음악가 또는 비음악가들에 대해선 그들은 능가하려 할 것이고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 하지 않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능가하려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사이에서 동의되면서 이제 부정한 사람의 경우가 거론된다.

이에 트라시마코스는 부정의한 사람이란 어떤 수단을 통해서건 항상 상대방보다 앞서려 하는 게 당연한 한에 있어서 부정의한 사람은 상대가 부정의한 사람이건 정의로운 사람이건 모두에 대해 능가하려 한다고 확언한다.³¹⁾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러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지혜있는 자가 지혜있는 자를 능가하려 하는가에 대한 논변과 대비시켜 공박한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악이나 의술에 있어 올바른 기술의 척도를 알고 있는 자가 지혜있는 자(ho sophos)인 한 그들은 그와 같은 다른 올바른 음악가나 의사를 능가하려하

30) pleonexia는 자신의 정당한 몫이상을 얻음 앞지름(getting more than your share) 내지 척도(適度)를 넘어서음을 의미한다(cf. P. Shorey (1969) p. 87). 즉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건 안하건간에 절대적으로 올바른 척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척도와 한계를 모르는 자는 지혜와 우수함의 속성을 결핍한 자이다. F. Cornford (1964) p. 33.

31) 이 부분에서의 트라시마코스의 언급은 그의 기본입장이 윤리적 허무주의, 법률주의, 자연적 권리론이라는 통상적인 견해 외에 심리적 이기주의로 불리게 되는 근거가 된다. cf. J. Adam The Republic of Pla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p. xxix.

지 앓을 것이다. 따라서 지혜있는 자는 월등한 자이며 다른 비슷한 사람을 능가하려하지 않고 지혜없는 자는 열악한 자이며 누구든지 능가하려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결국 부정의한 자는 분별력있는 술수로서의 지혜있는 자이며 누구든지 능가하고자 한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트라시마코스는 얼굴을 붉히면서(erythronta) 부정의한 자는 지혜없는 자이자 열악한 자이고 정의로운 자가 지있는 자이자 탁월한 사람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논변에 굴복하고 만다. 논쟁이 이렇게 끝나자 트라시마코스는 이제까지의 완강하던 태도와는 달리 자포자기한 듯 소크라테스의 논변을 이의없이 받아들여 기쁘게 해주겠다고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마지못해 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의 대화는 1권이 끝날 때까지 거의 소크라테스의 일방적인 논변으로 진행되기에 이른다.

ii) 두번째의 문제

트라시마코스에 의하면 부정의(adikia), 그것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부정의는 상대를 에속시키고 스스로에게 지고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트라시마코스의 이러한 주장에 입각하여 소크라테스는 두번째의 문제에 관한 논변을 위해 부정의로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예속시킨 강력한 부정의국가를 우선 상정한다. 그런 이후 소크라테스는 과연 그 부정의국가가 정의의 도움없이 그런 힘(dynamis)을 가질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부정의국가나 무리내부에서 공동으로 부정의한 일을 목적할 때 국가나 무리 내부상호에게서 부정이 행해지면 그 처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물음은 부정의가 함축하는 무제한한 이기가 일반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결코 강한 힘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라시마코스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부정의가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부정의가 결코 국가에 있어서나 무리에 있어서 강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의한 구성원 상호간의 불화 및 증오(misē) 그리고 싸움(makē)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밝힘으로써³²⁾ 부정의가 결코 정의보다 강할 수 없음을 논증한다. 그런 이후 소크라테스는 이 논변이 국가나 무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en henī) 동일한 것이라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즉 부정의는 개인의 영혼(psychē)안에서도 내적인 불화와 불일치의 근원이 되면서 개인이 목적하는 바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언급된다.³³⁾ 이곳에서의 이와 같은 정의 및 부정의의 개인영혼에 대한 적용은 이미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라는 사회적 단위로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영혼 내부의 지평, 국가 사회의 지평 더 나아가서는 우주영혼과 관련

32) 아테네의 붕괴를 자초하게 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배원인을 플라톤은 비전문성과 당파주의에 입각한 민주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맥은 페리클레스의 영화이후 민주정이 가져다준 피해상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cf. E. Barker, *The political thought of Plato and Aristotle*. Dover Publications, INC, 1906, pp.87-88.

된 천계(ouranos)의 지평³⁴⁾과 통일적으로 연관되는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폴리테이아편 전체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논의에 기본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iii) 세번째 문제

이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논변은 상대방 견해에 대한 부정으로만 일관해온 1권전체의 흐름에서 자신의 논변이 감추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록 추상적이고 짧으나마 비교적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축약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곧 정의란 사물이전, 인간이전, 조직이전 그것이 갖고있는 본래의 고유한 기능(ergon)을 탁월하게 실현시키는 그 자신의 덕(aretē)이다. 눈은 눈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귀는 귀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상호 구분되고 고유한 것이다. 물론 덩쿨을 자르는 데는 칼도 있고 기타 도구도 있으나 그것을 위한 고유한 기능은 낫(drepanon)이 수행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가장 탁월한 결과를 낳는다.³⁵⁾ 따라서 한 사물의 기능이라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만이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일을 뜻한다. 또한 각기의 사물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응해서 덕을 또한 갖고 있다. 덕이란 곧 기능이 이루어내는 탁월함의 극단치이다. 정의 또한 인간 삶의 고유한 기능에 있어서의 덕이다. 인간의 영혼이 갖는 고유의 기능은 이곳에서 언급되는 바 통합적 배려(epimeleisthai), 지배(archein), 궁리(bouleuesthai) 같은 것으로서 인간이 잘 산다함은 곧 그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영혼의 상태를 갖는다는 것이다.³⁶⁾ 따라서 탁월성의 극단치로서의 덕이자 지혜인 정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잘사는 상태 즉 행복(eudaimonia)을 결과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트라

33) 정의를 영혼의 조화로 설명하려는 의도에 대해 Irwin은 정의가 그 자신의 이익과 관련있는 타인을 기계적으로(instrumentally) 이롭게 한다는 점을 (즉 구성원들간의 자연적인 조화에 의한 상호이익) 드러내 주려고 시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T. Irwin (1977) p. 179). 그러나 플라톤에게 있어 영혼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내부의 영혼의 요소들과 국가, 천체와의 모든 관계를 자연적 질서와 조화로 통합하여 이끄는 내부 운동성이다.

아용든 도시와 개인 또는 도시와 개인의 영혼 사이에 대응성이 존재하는 한에서 도시는 적어도 하나의 자연적인 존재와 유사하다. Leo Strauss (1971) p. 49.

34) 개인과 국가의 유사성에 기초한 폴리테이아의 논의는 그의 말년의 대작 티마이오스(Timaios)편에 이르러 천체 즉 우주의 논의에로까지 확대된다. 티마이오스편 서두에 폴리테이아편의 전반부의 내용이 축약되면서 우주론적 논의의 단조를 제기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cf. 줄고. 플라톤 자연론의 성격 및 우주, 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 1집 1982)

35) 플라톤이 당대의 민주정의 폐단중 가장 주된 것중 하나로 비판한 것이 곧 다수결에 의한 전분성의 무시, 사회에 대한 인간본성의 고유한 적응력의 무시,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의 무능과 대중의 분별력없는 당파주의였다. 그러나 플라톤이 이제 욕구하는 것은 공동체내에서의 각자의 천부적인 소질에 입각한 임무의 전문적 분화, 그리고 그 고유기능의 가장 탁월한 수행이며 폴리테이아편에서의 정치철학적 논구의 목표는 곧 그것을 최선으로 실현하는 조건들의 모색이다. 이 문맥에서 나타나는 ergon과 aretē의 논의는 차후 논의의 기본틀을 단편적으로 시사해준다.

시마코스가 주장한 바 부정의한 자가 행복하다는 논변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에 관한 1권 말미에서의 부분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제까지의 논변이 정의에 관한 여타의 논변들에 대한 비판으로 진행되었고 정의자체에 대한 논변 역시 스스로의 적극적인 논변으로 천착되지 않았음인지 토론으로부터(ek tou dialogou) 얻은게 하나도 없다고 불만족스럽게 실토한다.³⁷⁾

이처럼 1권의 말미는 무지의 지를 표방하는 다분히 소크라테스적인 고백으로 끝을 맺는다.

IV. 맺는 말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1권을 불만족스럽게 마무리짓도록 한 플라톤의 의도는 이제 그 나름의 정의에 관한 적극적인 논변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사실상 플라톤은 트라시마코스의 이론이 표방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공동체의 분열이론이 적극적인 대안이 없는 부정적인 논파에 의해 결코 뿌리 뽑혀지지 않는 것임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2권에서부터 그는 트라시마코스적 정의의 이론을 글라우콘(Glaukon)과 아데이만토스(Adeimantos)의 입을 통해 조직적으로 재구성시키면서 1권에서 취한 논변의 부정적 비판과 공박의 지위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적극적인 논변의 구축자로 나서게 한다. 그리고 그 답변은 개인과 국가간의 놀랄만하게 단순한 유추를 거쳐 자연스럽게 국가에서의 정의로 확대되면서 이상국가에 관한 논의의 형태로 폴리테이아편 전면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온 본래적인 논의의 틀로서 정의로운 사람에 관한 물음은 배후로 숨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종종 폴리테이아편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단순히 정치철학적 분야를 다룬 저술이라는 인식에 빠져들곤 한다. 물론 서두에서 시사되었듯이 국가의 문제가 정의로운 사람에 관한 문제가 별개가 아닌 한 굳이 폴리테이아편의 기본틀을 정의로운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연하는 것은 폴리테이아편 전체에 대한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폴리테이아편을 이해함에 있어 왜 플라톤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를 별개로 다

36) 이것은 정의로운 사람이란 단순히 그것을 원함으로써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정의로운 추측이나 요행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탐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한 각자의 기능의 탁월한 발휘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런 측면에서 도덕은 곧 지식이며 정의는 당대의 민주정에서처럼 인간의 머리수나 대중의 여론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cf. G. Sabine,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New York 1973, Chapter IV.

37) 이와같이 무지의 지를 표방하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은 Charmides 175 a-b, Lysis 222 d-e, Protagoras 36 a-b 등에서도 나타난다.

무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왜 정의의 문제를 개인 내부의 영혼의 단위로까지 그리고 크
 계는 우주영혼으로서의 천계에까지 확산시켜 통일적인 맥락하에서 논구해들어가는 것인
 가를 앞에서의 시각과 관련시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물음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플라톤의 제반 정치철학적 도덕적 논
 변들이 추구하는 것이란 곧 인간에게 주어진 명백한 현실조건들로부터 우리가 최선의 삶
 의 모습을 구축하고자 할 때 그 완전한 총체적 인간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개인, 사회,
 국가, 우주를 관통하는 영원의 상하에서 통일적으로 규정짓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고는 이제 그러한 플라톤의 의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폴리
 테이아전편을 이해함에 앞서 비록 부정적인 논과과정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기본시각상
 의 중요한 시사를 예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1권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머물면서
 이제까지의 분석에 의거하여 폴리테이아전편에 대한 이해의 시각과 관련되는 것이라 믿
 어지는 몇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1권의 분석과 관련한 본 논고의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1) 정의(dikaiosynē)는 무엇인가 숙지해야 산출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과 비교되는
 모종의 삶의 기술(technē)과 관련되어 있다.
- 2) 정의는 기술이 그러하듯 기술의 고유한 탁월성(aretē)의 극단치로서의 절대적이
 고 객관적인 척도(metron)를 갖는다.
- 3) 정의가 지혜(sophia)이자 덕(aretē)인한 정의로운 사람(ho dikaios)이란 인간 고
 유영혼(psychē)의 기능(ergon)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 즉 배려, 지
 배, 분별있는 궁리등의 고도의 합리적인 능력을 갖춘 자이다.
- 4) 정의는 정당한 몫이상을 추구하는 즉 타자의 능가(pleonexia)에 의한 자기확장이
 아닌 그들과의 조화(harmonia)에 합당한 엄밀한 자기 고유기능의 확인(theoria)
 이자 실현(praxis)이다.
- 5) 정의는 개인대 개인 국가와 개인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넘어서서 영혼의 내부조화
 로부터 그 유추가 천계(ouranos)에까지 확산되어 있는 자연적 내부질서이다.